

# 2023년 고창군 10대 뉴스

“상상 그 이상,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조감도

고창군이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친환경’·‘미래첨단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물류센터나 통신소자 반도체의 특성상 용수는 적게 사용하고 오·폐수 발생량이 적어 주민생활 피해나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고창군, 삼성전자(주) 3000억원 투자유치 성공...“호남권 최대규모 스마트허브단지 구축”

### 고창군이 재계서열 1위, 꿈의 기업 삼성전자를 품었다.

삼성전자는 9월25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고창신활력산업단지내 부지(18만㎡ 규모)를 사들여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총 3000억원 내외의 투자와 약 500여명의 직·간접적인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내년초 건축설계 및 인허가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 기반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 김동욱 부사장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물류수송이 편리하고, 많은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 감동해 고창에 호남권 최대규모 물류 사업장을 짓게 됐다”고 말했다.

### 반도체 제조용 원료 생산 (주)지텍, 신활력산업단지에 300억원 투자

(주)지텍은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통신소자형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다.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1만평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생산설비 15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3년간 총 300억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100여명의 고용인원 창출이 기대된다.

\* 지역경제 파급효과(예상) : 지역세수 증대 등

- 전기자동차용 반도체에 비해 3배 고부가가치인 통신소자형 반도체 생산으로 높은 수익성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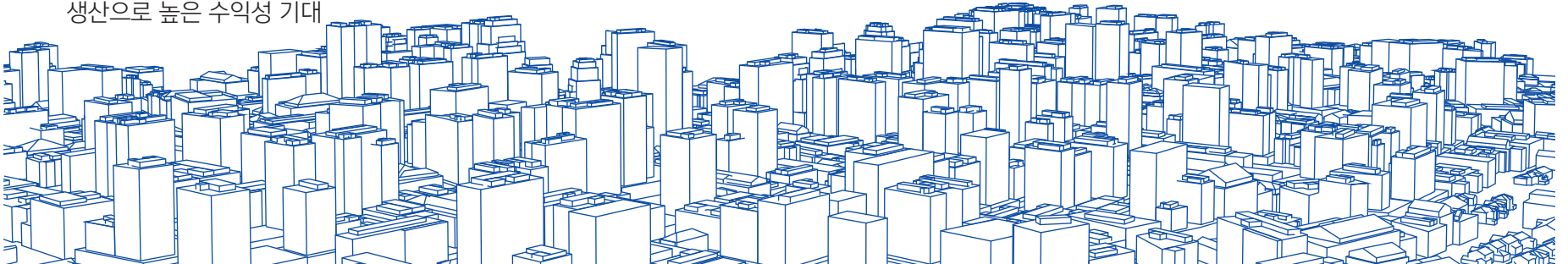
“삼성전자 등의 투자유치로  
지역 산업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것”

### (주)에스비푸드와 투자협약체결 “고추종합유통센터 활용”

(주)에스비푸드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올리고당과 물엿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고창군 고수면 고추종합유통센터를 활용해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설비 12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2년간 총 260억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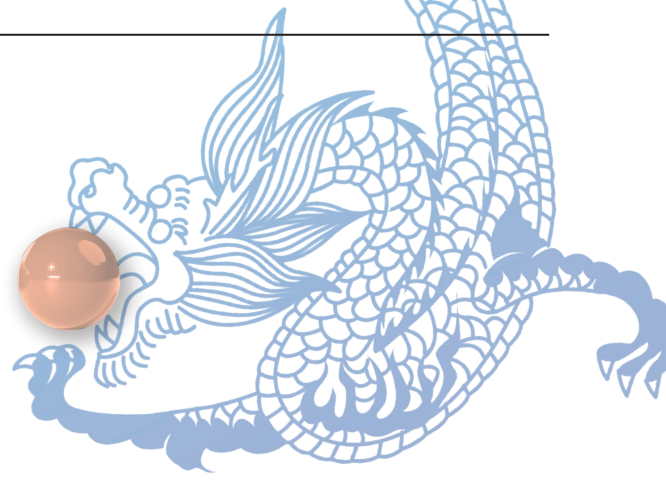
70여명의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베타아밀라제 원료인 고구마를 연간 800톤, 쌀조청 및 쌀올리고당 원료인 쌀을 연간 1000톤을 지역에서 직접 구매해 제조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024년, 청룡의 해가 더욱 기대되는 고창군 3대 핵심사업



## 1. '고창군 버스터미널, 청년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탄탄한 국비 지원받아 순항



고창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이 탄탄한 국비지원을 받아 순항하고 있다. 사업은 국비 250억원과 민간의 자본 1044억원 등 총 1661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추진한다.

12월 현재 터미널 부지매입이 완료됐고, 지난 11월16일에는 주변 상가들이 참여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청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계획 변경 협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체류형 생활인구 늘리기 공모사업(고향올래)에 선정되면서 청년복합공간 조성에 날개를 달게 됐다.

고창군 청년복합공간은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에 지원한다.

상업시설과 청년창업오피스 운영, 교육공간 공유주방, 체력단력실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청년생활인구를 위한 주거업무 복합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 2. 고창군-용평리조트,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체결



고창군이 11월3일 (주)HJ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역할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현실화했다.

2025년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완공으로 고창군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최소 300실 이상의 중대형급 숙박시설이 조성되면서, 고창군의 숙원사업인 "체류형 생태관광지 조성"에 한발짝 다가섰다.

## 3. "첨단 산업 메카로 도약"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빠르게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일원에 2만 1천여평) 규모로 지어진다. 드론 이착륙장, 활주로, 실기시험장 및 통합지원센터(비행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비만 375억원에 달한다. 시설투자과 운영비 모두를 국토부에서 내면서, 군의 재정적 부담이 없는 알짜사업이다. 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 결정,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2024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고창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 사업 본격화  
행안부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  
청년공간 만들어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





## 1천만 관광시대 활짝!

국내를 넘어  
전세계 각지에서 발걸음 이어지며  
조용하던 농촌도시가 들썩이고 있다



고창,  
그 뜨거웠던 여름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풍요롭게  
찬란하게



함께 걸어온 50,  
미래로 여는 100년!





# 고창군, '국내최초'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개 보유

세계유산도시,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UP



2023년 5월18일 고창군이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에는 고창군 13개, 부안군 19개소 등 총 32개소의 지질 명소가 포함됐다. 고창군에선 선운산의 천마봉, 마애불, 진흥굴, 병바위, 소요산 용암돔, 송계리 시생대 편마암, 명매기샘, 고인돌군, 명사십리해변, 구시포 가막도, 쉼니아, 대죽도, 고창갯벌이 지정됐다.

이튿날(5월19일)에는 의향고창의 정신이 담긴 동학농민혁명 '무장포고문' 등 3건이 마침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쾌거가 전해졌다. 군은 향후 무장기포지에 기념관을 짓고, 포고문 필사본 등을 전시해 동학농민혁명 시작점의 위상을 높여갈 예정이다.



고창문화의전당 로비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무장포고문 등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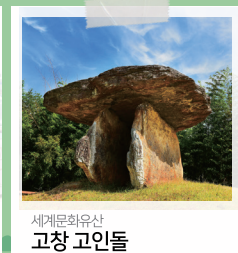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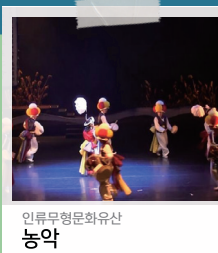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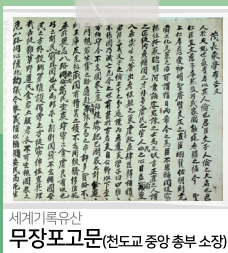
고창군을 처음 방문 하는 사람들은 고속도로 IC를 지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를 알리는 멋진 조형물과 마주한다. 하단에는 7개의 세계유산 엠블럼이 새겨져 있다. 조형물은 고창군의 중심인 군청 앞에도 세워져 오가는 지역주민들과 방문객이 인증샷을 찍는 포토존으로 사랑받고 있다.



“고창이 지켜온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씨앗은 문화·관광·경제·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선도하는 든든한 보루로서 더욱 빛을 발할 것 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보물에 스토리와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각 유산별 가치를 재창조하고, 급변하는 문화유산 향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고창군은 앞으로 '마한역사유적'과 '상금리고인돌군'의 세계유산 등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7월1일 고창읍성광장 '세계유산 유네스코 7가지 보물 등재 기념행사' 기념사 중

## · 고창이 품고있는 ·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가지





## “행복하고 활력넘치는 농업·농촌 고창이 만들겠습니다”

고창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지역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인력난 한방에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안정대책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제시(남자는 하한 11만원~상한 13만원으로 하고, 여자는 하한 9만원~상한 11만원), 드론방제단 운영 등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농업의 어려움 해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는 600명 가량이 입국해 고창에서 일했고, 내년에는 1000여명 정도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 7개 품목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본격 운영



고창군 농업인이 정성껏 키운 7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이 보장된다. 지원 품목은 고구마, 수박, 배, 배추, 고추, 양파, 무 등 총 7개 품목이다. 고창군은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요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제도적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의 지원대상은 관내 통합마케팅 조직(또는 참여조직)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가로, 품목별 최저가격이 시장가격 이하일 때 그 차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한다.

### 미래농업을 위한 차세대 사업발굴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1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를 2025년까지 성송면 판정리 일대에 구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고창군 농촌협약으로 향후 5년간 총사업비 589억원을 투입해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 고창군 농업인회관 건립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해결”



‘고창군 농업인회관 건립’ 농업인회관 1층에는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지역 우수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가공과 시제품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창업·가공기술 교육공간으로 활용된다. 우리쌀 이용 제과·제빵교육, 음료 및 소스개발 등 다양한 창업·가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층에는 농업인단체 사무실과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 교환을 위한 세미나실, 교육장 등 다양한 농업기술 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3층은 200여석을 갖춘 대회의실로 구성됐다.



## 청춘메카 고창, ‘청년행복도시’ 한걸음.. “꿈 많은 청년들이여 고창으로 오라” 일자리, 참여정책, 주거지원 등 폭넓은 지원

고창군이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청년 행복도시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 고창군은 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청년(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을 대상으로 3대 중점과제(일자리, 참여, 주거) 60개 사업 161억원 상당의 청년정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청년, 고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다

고창군은 1년여간 청년과 신중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일자리 121개를 창출·지원했다. 로컬 JOB센터를 통해 취업정보 제공, 면접수당과 창업 멘토링 지원, 관내 기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또 청년들의 열정넘치는 도전을 위해 창업꿈나무 임차료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에게는 필요한 기반조성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선운산 도립공원 내 청년상가가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선 지역 청년들의 생산품을 낮은 수수료로 중계 전시·판매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영역을 넓히는 역할도 맡고 있다.



### #고창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청년정책’

고창군은 올해 초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정책위원회를 조직·출범시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11개 팀을 선발해 팀당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명예청년 군수제를 분기마다 시행하는 등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완비했다.

향후 ‘고창 한달살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창 청년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켜갈 예정이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청년 기본계획’, ‘청년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고창에서 실현되는 ‘내 집 마련의 꿈’

고창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주택 구입과 전세 등에 필요한 주택 대출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 총 3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또 외부 유입 귀농청년들의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에 대한 정책자금을 이차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빈집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해 주거공간 확보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 고창 추진할 것”

고창군 청년창업팀 윤호근 팀장은 “지역과 청년의 동반성장, 활력 넘치는 청년 고창, 청년과 함께 행복한 고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며 “젊은 청년들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선정되는 등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1년여간의 성과를 돌아봤다.

이어 윤 팀장은 “장기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활동 생태계를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해 ‘청년 1번지 고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이 낳기 좋은 고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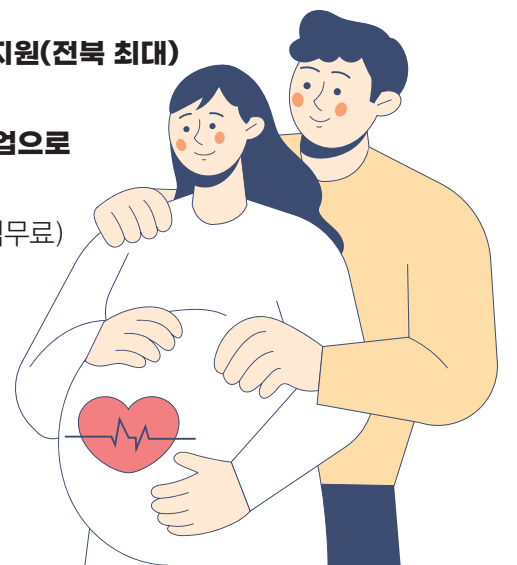
#### 1. 고창출산장려지원금 대폭 확대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5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2000만원

#### 2. 산후조리비 200만원 통크게 지원(전북 최대)

#### 3. 2023년 12월 현재 군 자체사업으로

임신출산축하용품(50만원)  
+분만진료비(관내 병원 분만시 전액무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본인부담금의 90%) 등을 지원





&lt;고창 문화도시 추진 1년과 내일&gt;

## “치유문화로 연결된 치유허브” <문화도시 고창의 1년을 돌아보다!>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6일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비전으로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2027년까지 5년간 160억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창문화도시센터에서는 올 한해 동안 본격적으로 주민 중심의 문화도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 치유문화도시 브랜드 창출 및 지속가능한 사회효과 창출

- 치유문화축제(11.3.~11.5./선운산도립공원/3만3천여명 방문) 개최로 지역브랜드 정립과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대내외에 홍보
-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마을경관을 기획하고 조성한 마을문화경관사업(10개마을)
- 14개 읍면별 대표 치유문화자원을 발굴·콘텐츠화하여 실행한 1읍면 1특색치유문화사업 추진
- 세계가 인정하는 유네스코 7가지 보물과 함께하는 치유문화 팸투어 진행
- 고령사회와 지역인구감소 등 지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농산어촌형 문화도시 선진사례를 위한 노인치유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등



### 시민문화력 강화, 창의 인력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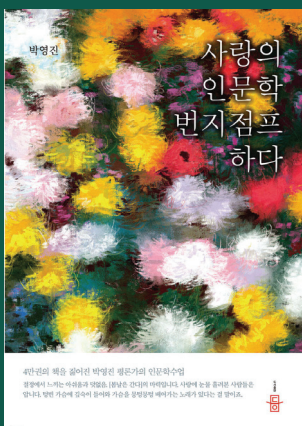
- 고창문화자원의 발굴과 문화·관광 상품 개발 아이디어 공모(35건)
- 지역사회문제를 시민 스스로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민연구모임 (3개그룹/치유,균형,청년) 운영, 청년문화기획자 양성(33명)
- 힐링, 문화도시와 경제학 학술대회 개최 : 문화도시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학술 토론회



###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 고창 문화도시가 시민적 토대위에 성장·발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민 워킹그룹 구축을 위한 시민문화활동가 양성(88명)
-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치유문화 창작 활동지원(14개팀/공연, 전시 등)
- 문화예술 프로그램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치유문화배달사업 진행 : 95개마을/읍면 경로당, 마을회관 등 8개프로그램(힐링체조, 치유트롯, 치유원예, 힐링미용, 치유미술, 다도치유 등)

2024년에도 문화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군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오랫동안 살고 싶은 도시로, 문화도시 고창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 사서추천, 이달의 도서

사랑의 인문학 번지점프 하다

박영진 /  
도서출판등 / 2023

꾸준히 인문학을 사랑하며, 비평활동과 인문학 강의를 해온 책풍 촌장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다가서기 어려운 인문학을 그만의 재치로 즐겁게 풀어냈다. 인문학에 관심은 있지만, 인문학을 시작하기 어려워하시던 분이라면 이번이 바로 그 기회이다.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녹일, 봄날의 따스한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보는 것을 권한다. 술술 읽히는 이야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 인문학 지식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학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더욱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 작가소개

전북 고창 출신, 문학평론가, 인문학자. <책이있는풍경>총장, <책풍협동조합> 이사장



# 고창에서 즐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어르신이 즐겁고 흥겹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곧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모든 연령의 군민이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사각지대를 해소, 고창군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소득층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층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층 임플란트·틀니지원사업’도 지난 7월 시행됐다. 지원내용으로 ▲(노인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레진상, 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임플란트)상·하악 구분없이 1인 최대 2대 지원(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제외하고 부분틀니와 중복지원 가능)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1악당 최대 3개(2악 최대 6개)까지 보철 비용 지원(비급여) ▲(틀니 사후관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 관리비 지원이다.



## 청진기·혈압계 들고 고창 누비는 ‘우리마을 주치의사제’

고창군 노인건강 프로그램의 핵심 ‘우리마을주치의사제’는 공중보건의사와 방문보건 전문인력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기초건강측정, 건강상담, 대상자별 통합보건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읍면별 10개소씩 총 150개소를 선정해 시범 실시 했고, 호응이 좋아 올해부터는 전체 경로당 604개소를 대상으로 확대 됐다.



## 65세이상 보건소 진료비 전액 무료

고창군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감기나 소화불량 등으로 보건소 진료를 볼 때 진료비가 무료다. 지난 10월 16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연인원 4만 2000명에게 연간 62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이 기대되고 있다.

## 사진으로보는 명소

세계지질공원 고창 병바위 설경



초대작가\_박현규



## 제302회 고창군의회 2차 정례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실시 -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제2차 정례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으며,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4년도 부서별 시책업무 보고와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이어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환 의원의 “세계문화유산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임정호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집행부는 의회에서 제시한 지적 및 개선·제안 등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절한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고창군의회,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군민 불편 해소와 실질적 해결 방안 마련에 중점 -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위원장 이선덕)는 제302회 2차 정례회 이튿날인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2023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임정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군정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선덕 위원장은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군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인지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이다.



## ▲ 이경신 의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 반납을 지적하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예산 편성 계획 수립을 당부하였으며, 행복 콜택시 및 행복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

## ▲ 조규철 의원

민간단체 보조금 카드 사용 비율에 대해 질의한 후 카드를 활용한 보조금 지급의 확대와 더불어 이에 발생 되는 보조금 카드 포인트 세외수입처리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으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연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촉구

## ▲ 차남준 의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연간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으며 냉난방비 또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예산 증액을 당부

## ▲ 조민규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평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들에 대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으며,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과 운곡람사르습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강조

## ▲ 최인규 의원

행정을 할 때는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동림 저수지의 AI 초소운영과 관련하여 타 지점보다 흥덕면 쪽 초소 개수와 인력배치가 적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

## ▲ 박성만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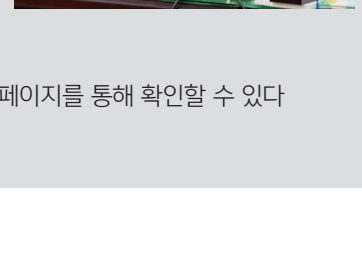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올해 실적이 연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현저히 낮음을 언급한 후 제도의 문제점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과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

## ▲ 임종훈 의원

수산업과 관련하여 해양 치유 사업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 공모사업, 양식업의 스마트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흥덕면 북부권체육관과 관련하여 이용시간의 제한과 사용료 부과 등의 제약이 많아 주민복지시설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관부서 정리의 필요성을 피력

## ▲ 오세환 의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남녀 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지거나 여성위원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청년분과를 신설하여 청년 문제를 스스로 토론했보고 관련 예산도 세워볼 것을 제안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며 자세한 질의·응답 내용은 고창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창군의의회,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다

- 군민과 소통하며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

고창군의의회는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경제 회복과 군민 안전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군민의 삶을 챙기는 의정 활동으로 숨가쁜 한해를 달려왔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제정, 군정 질문, 5분 자유발언, 건의문 및 성명서 발표 건수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 앞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였으며 전통시장, 농어가, 복지시설 등을 찾아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 결정 반대 성명 발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고창군 해역 사전 방사능 조사 등 원전 방사능과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한편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홈페이지의 개편과 함께 어린이 의회를 운영 하였으며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고창군의의회 최초의 자매결연(고창군의의회↔은평구의의회)을 맺었다. 또한 홍보팀을 의사홍보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책지원팀 신설 및 정책지원관 충원 등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와 인사혁신에도 속도를 냈다.

임정호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고창군의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1년간의 발자취를 거울삼아 새해에도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군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군민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고창군의의회 어린이의회 운영



| 고창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고창군의의회↔은평구의의회 자매결연



| 한빛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계획 규탄



| 제9대 고창군의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 노후화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등 범군민 서명운동



# 2024.1월부터 고창군민, 영광·장성 유료관광지와 체육시설 할인혜택 적용

대상시설	영광군	불갑산상사화축제, 영광칠산타워, 영광테마식물원, 영광예술의전당,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체육시설
	장성군	장성호수변길, 홍길동체육관, 위라벨돔경기장,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고창군-영광군-장성군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 조정 안내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도입으로 인한 선거일 투표자수 지속적 감소 등 변화한 선거환경을 반영하여 공음면·성송면·흥덕면의 관할 투표구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공음면 투표구 조정 내역

<제1투표구와 제2투표구를 통합(폐지)하고 공음면투표구를 신설>

투표구명	관할구역	변경내역	투표소예정장소
공음면투표구	공음면 전 지역	제1~2투표구 통합 공음면투표구 신설	공음실내체육관 (1층)

### 성송면 투표구 조정 내역

<제1투표구와 제2투표구를 통합(폐지)하고 성송면투표구를 신설>

투표구명	관할구역	변경내역	투표소예정장소
성송면투표구	성송면 전 지역	제1~2투표구 통합 성송면투표구 신설	성송체육회관 (1층)

### 흥덕면 투표구 조정 내역

<제1투표구와 제2투표구를 통합(폐지)하고 흥덕면투표구를 신설>

투표구명	관할구역	변경내역	투표소예정장소
흥덕면투표구	흥덕면 전 지역	제1~2투표구 통합 흥덕면투표구 신설	흥덕문화복지관 (2층, 회의실)

아울러 통합(폐지)된 투표구 선거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교통편의 제공차량 확대, 현수막 게시, 투표안내요원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기타 투표구 조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063-561-59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창 소작담 양도투쟁 참여자 조사

고창 소작담 양도투쟁농민운동 참여자 명단을 기념탑에 새기고자 합니다.  
당시 농민운동에참여하셨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접수기간 : 2023. 11. 27(월) ~ 12. 22.(금) 24:00까지

접수방법 : - 전화 : 070-7119-2810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온라인 : <https://sites.google.com/view/g1985>

조사기관 : (주)도시경영연구원

후원기관 : 고창삼양사소작담양도기념사업회 / 고창군 문화예술과

## 녹두장군 전봉준, 고창군 중심에 우뚝 선다

전봉준 장군 동상(義의 깃발아래) 2024년 1월10일 공개!!!



설치위치 : 고창군청 맞은편

제막식 : 2024. 1. 10.(전봉준장군 탄생 제 168주년기념행사 ) 예정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고창출신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2024년 1월 고창군 중심에 우뚝 세워진다.

전봉준 장군 동상 ‘義의 깃발아래’를 제작 중인 익산 국경오작가 미술연구소가 막바지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동상은 무장포고문 선포 후 의연한 자세로 앞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순간과 그 옆에 농민군이 비장하게 결의하는 모습, 당시의 고통받던 민초들의 처절한 모습 등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군민과 관광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군청 맞은편(오거리 회전교차로 옆)에 설치돼 2024년 1월10일 ‘전봉준장군 탄생 제168주년 기념행사’에서 군민에게 공개된다.

동상 주변을 수변공간과 잔디광장을 갖춘 소공원으로 조성해 동상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쉼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2024. 1. 18.

##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다시 함께, 새로운 시작! 우리의 달라질 미래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